

가상통화 취급업소 '지갑관리' 미흡

대부분 취급업소 취약점 개선 미완료 단기조치항목 21개 업체중 11개 이행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지갑관리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취급업소 해킹으로 인한 가상통화 유출이 이용자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보안 수준이 취약한 취급업소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 취급업소로 꼽히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링크, 코인원, 코인플러그, 후오비 등 8개 취급업소는 보안 미비점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1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 개선권고 이행현황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취급업소에 보안 미비점 개선을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KISA가 21개 취급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에 대한 점검에서 취급업소 대부분의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와 KISA는 단기간에 조치 가능한 ▲보안전담 조직 구성 ▲관리 전용 단말기 지정 ▲시스템 접근 패스워드 관리 등 6개 항목과 ▲가상통화 입출금 통제 ▲지갑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 가상통화 지갑관리 11개 항목까지 총 17개 항목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점검은 KISA 보안전문가가 직접 취급업소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조치를 권고한 17개 보안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단기조치항목은 21개 업체중 11개 업체가 이행완료됐으나, 가상통화 지갑관리 부분에서는 대부분 취급업소의 취약점 개선이 아직 미완

상태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개 취급업소에서 지갑(핫 월렛) 개인키 유출·분실 방지 보안대책 미흡, 10개 취급업소에서 지갑(핫 월렛) 이상징후 모니터링 미흡, 10개 취급업소에서 지갑백업·복구대책 미흡 등이 지적됐다. 다만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링크, 코인원, 코인플러그, 후오비 등 8개 취급업소는 단기조치항목 이행을 완료하고 가상통화 지갑관리 항목도 보안 미비 항목을 2개(20%) 이내로 개선하는 등 보안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보안 개선권고 이행현황 최종점검을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해 85개 보안항목 전체

의 개선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최종점검 결과에서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으로 구성된 85개 보안 점검항목 전체를 만족하는 취급업소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아직 취급업소의 보안이 취약한 수준으로 이용자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며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취급업소의 보안 수준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취급업소에게는 "보안점검 결과 확인된 보안 미비점에 대한 개선 권고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는 등 보안 수준 향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발전 위한 정책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지난 16일 군산시를 방문,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군산시 건설교통국장과 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도시, 건설, 주택, 건축, 교통, 토지 등 건설관련 부서 과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태경 회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정책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를 확대 해 줄 것과,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하도급 관리', 원·하도급사 동반성장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김태경 회장은 지속적으로 각 기관장들 및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도내 회원업체의 수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폭염 피해복구 여신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폭염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신지원 대책을 지난 17일 마련했다. 지원 대상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업인, 주민,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피해액 범위내에

서 최대 기업자금은 5억원, 가계자금은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우 최대 1.6%까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신규대출 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이내(중소기업의 경우 15년 이내), 운전자금과 가계자금은 각각 5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납입 유예, 할부상환금 납입(보증서담보

및 정책대출은 제외) 유예 등의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경우는 최대 3억원까지 100% 농신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근 본부장은 "최근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농업인 등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적기에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남북정상회담 기념 우표첩 사전예약 접수

이달 26일까지 사전예약 10월 발행...가액 2만5000원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오는 10월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장면을 담은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 우표첩'의 발행을 앞두고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우표첩은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와 정상회담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우표, 초일봉투로 구성되어 있다. 또 2000년과 2007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사진을 담았다. 우표첩 이미지는 20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 공개된다. 사전예약은 전북지역 218개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20일부터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인터넷우체국, 모바일 서비스)은 26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우표첩 판매가격은 2만5,000원이며, 사전 예약 신청과 동시에 결제를 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수량은 개인은 1인당 3부까지, 기관은 매



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념우표첩은 10월 중에 전달되며, 우체국을 방문해 찾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다. 우표첩 판매 금액에 등기 우편요금(의일특급 또는 일반등기 선택 가능)이 추가된다. 우체국을 방문하여 사전 예약을 신청한 고객 중 우편 주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접수증을 가지고 신청한 우체국을 찾아 변경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한 고객의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를 다시 접속하여 직접 주소지를 변경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대학등록금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JB빛나는 청춘 대학등록금 납부 경품이벤트'를 실시한다.

'JB 빛나는 청춘 대학 등록금 이벤트'

전북은행서 납부한 고객 대상 추첨통해 경품 지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웅택)은 대학등록금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JB빛나는 청춘 대학등록금 납부 경품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전북은행에서 대학(원)등록금을 납부하고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북은행 홈페이지와 뉴스마트뱅킹에서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총 130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이벤트 당첨자 1등 1명에게는 노트북, 2등 3명에게 태블릿PC, 3등 11명에게 블루투스 이어폰, 4등 15명에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지급하며 행운상 100명에게 SEC 모바일상품권을 제공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각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벤트 추첨 결과는 오는 10월 12일 전북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올바른 OI카드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고객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올바른 OI카드를 지난 1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올바른 OI카드는 GS칼텍스·농협주유소 이용 시 전월실적에 따라 리터당 100원~150원 할인을 제공하며 NH농협카드 최초로 주유 할인액 만큼 고객의 채움포인트가 자동으로 사용되는 서비스(선택 사항)를 도입하여 혜택 체감을 2배로 늘렸다. 또한 고객 선호 생활업종인 ▲커피전문점(스타벅스/이디야) 10% ▲편의점(CU/GS25) 5% ▲교통(버스/지하철/택시) 5% ▲카카오톡라이버 자동결제 이용 시 10% 채움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차량 경정비 업체인 오토아시아에서 엔진오일 교환 시 3만원 할인, 오토미션 오일교환 2만원 할인 등 총 7개 경쟁비 항목에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발급은 전국 NH농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조건(전월 실적 및 월 할인 한도)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푸르밀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